



뉴욕 메츠전 결승 투런포... 피츠버그 5연패 탈출

31경기만에 9호... '63경기 20홈런' 트럼보와 동급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15일(한국시간) 시즌 9호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팀 내 홈런 공동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강정호는 이날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뉴욕 메츠전에서 메츠 선발투수 제이콥 디그롬의 강속구를 받아쳐 시즌 9호 홈런을 날렸다.

0-0으로 맞선 6회초 2사 1루에서 디그롬의 2구째인 시속 151km(94마일) 포심을 잡아당겨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29.2m(424피트)짜리 2점 홈런을 터뜨렸다. 이 홈런으로 강정호는 앤드루 매커전, 그레고리 폴랑코와 함께 팀 내 홈런 공동 1위(9개)에 올랐다.

매커전은 이날 2번 타자 중견수, 폴랑코는 3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다. 강정호도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중심타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4번 타자 좌익수 스타링 마르테는 홈런 6개로 팀 내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다.

역전전 구한 강정호

이들 사이에서 강정호가 빛나는 이유는 출전 경기 수를 보면 알 수 있다. 강정호는 이날까지 31경기를 소화했다. 61경기를 뛴 매커전, 62경기에 출전한 폴랑코와 비교해 절반에 해당하는 경기에 나서면서 같은 수의 홈런을 기록한 것이다.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1위인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마크 트럼보는 63경기에서 20홈런을 날렸다. 단순 계산을 하면 강정호의 홈런 페이스는 트럼보급이다. 강정호는 지난해 9월 1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1회초 수비 때 병살 플레이를 시도하다 주자 크리스 코글란의 거친 슬라이딩에 왼쪽 무릎을 크게 다쳤다. 왼쪽 무릎 내측 측부 인대 및 반열판 파열, 정강이뼈 골절이라는 악재를 만난 강정호는 결국 수술을 받았고, 긴 재활 기간을 거쳐 지난 5월 7일에야 복귀했다. 강정호는 이날 경기에서 홈런을 포함해 3타수 2안타 1볼넷 2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이 홈런은 강정호가 31경기 만에 만든 시즌 30호 안타이기도 했다. 미국 CBS스포츠는 판타지 야구 기사에서 "강정호는 심각한 무릎 부상에서 회복한 뒤에 받은 기대를 넘어섰다"고 호평했다. /연합뉴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15일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뉴욕 메츠와 열린 미국 프로 야구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4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디그롬의 3구째인 시속 145km(90마일) 슬라이더를 받아쳐 중전 안타를 때렸다. /연합뉴스



호날두, 피구 넘는다

A매치 최다기록 '127' 타이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1·포르투갈)가 또 하나의 기록을 눈앞에 뒀다.

호날두는 15일(한국시간) 프랑스 생테티엔 스타드 조프루아 기사르에서 열린 유로 2016 조별리그 F조 1차전 아이슬란드와 경기에 출전했다.

자신의 A매치 127번째 경기를 마친 호날두는 포르투갈 전설인 루이스 피구(44)의 포르투갈 선수 중 A매치 최다 출전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19일 열리는 오스트리아와 2차전에 출전하면 기록을 깨게 된다.

유로 2016이 자신의 4번째 유로 출전인 호날두는 이번 대회에서 골을 넣으면 4개 대회에서 모두 득점을 올린 첫 번째 선수가 된다. 그는 또 유로 본선에서 현재 6골을 터뜨리며 누누 고메스(40)와 함께 포르투갈 선수 최다 득점자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로 본선 최다 골 기록은 9골을 넣은 미셸 플라티니(프랑스)가 갖고 있다.

호날두는 또 이날 출전으로 유로에서만 15경기에 출전하며 고메스가 갖고 있던 포르투갈 선수 중 유럽선수권 최다 경기 출전 기록(14경기)도 깼다.

이는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인 릴리앙 튀랑(44)과 에드윈 반 데 사르(46) 전 네덜란드 국가대표가 가진 유로 최다 경기 출전 기록(16경기)과 한 경기 차이다. /연합뉴스



“내 탓” 김기태의 반성문

이른 수비 라인업 교체로 반격 기회 잃어 선수들 잘했는데 감독이 운영 잘못해 저

15일 두산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KIA 김기태 감독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미안해서 경기장에 못 나가겠다. 선수들은 잘 해줬는데 감독이 운영을 잘못해서 졌다”며 입을 열었다. 전날 KIA는 1회부터 리드를 잡았지만 9회초 대거 4실점을 하면서 6-8 역전패를 당했다.

매 경기 라인업을 시험가동하고 있는 KIA는 이날 두산과 유회관을 상대하기 위해 1번 타자 나지완이라는 라인업을 제출했다.

페이스가 떨어진 김호영 대신 출루율이 좋은 나지완으로 초반부터 세게 붙겠다는 계산이었다. 정석의 라인업은 아니었지만 출발은 좋았다. 중전안타로 출루한 나지완이 김호영의 희생번트, 김주찬의 안타 그리고 이범호의 희생플라이로 홈을 밟았다. 필의 1타점 2루타까지 이어졌다. 2-1로 쫓긴 3회에는 이홍구의 투런이 나왔고,

4-2가 된 6회에는 나지완이 3루타에 이어 상대 실책으로 홈까지 들어왔다.

초반 계산은 잘 들어맞았지만 뒷문 계산에서 오류가 났다. 일단 볼넷이 계산에 복잡하게 했다. 투구수 관리에 실패한 지크가 6회까지 113개의 공을 던졌다. 예상과 달리 7회 다시 지크가 나왔지만 볼넷만 남았다. 두 번째 투수 박준표도 볼넷을 허용했고, 1사 1-2루에서 홍건희가 일찍 투입됐다. 홍건희가 삼진으로 투아웃을 만들었지만 민병헌에게 적시타를 맞았다.

7회말 이범호의 솔로포로 6-3, 3점차 리드가 이뤄지자 빠르게 수비 라인업이 갖춰졌다. 홈런타자 이홍구를 대신해 한승택이 마스크를 썼고, 필의 자리에는 김주형이 들어갔다. 우익수에 있던 고영우가 유격수로, 이호신이 외야로 나갔다. 하지만 두산 에반스가 수비에 상관없이 담장을 넘기면서 4-6. 마지막 9회를 앞두고 다시 변화가 있었다. 김주형을 빼고 박찬호를 투

입하면서 내야 진영을 바꿨고, 마운드에는 최영필이 투입됐다. 그러나 최영필이 안타와 볼넷으로 1사 1-2루 위기를 자초했고, 2사 1-2루에서 한기주를 상대한 김재환이 수비수들이 손 쓸 것도 없이 담장을 넘겼다. 에반스의 연타석 홈런까지 나오면서 순식간에 6-8이 됐다.

KIA가 9회말 선두타자 김주찬의 좌전 안타로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일찍 수비 진용을 짜면서 타선의 힘이 떨어졌다. 이범호가 1루수 파울플라이로 물러난 뒤 이호신의 잘 맞은 타구가 민병헌의 호수비에 잡혔고, 한승택은 3루 땅볼로 돌아섰다.

올 시즌 KIA의 야구는 '햇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매 경기 다양한 라인업으로 야수진을 총가동하고도 승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짜릿한 끝내기 쇼는 단 한차례 연출하지 못하는 등 뒤집기에는 소질이 없다.

보유하고 있는 최상의 카드도 최고의 전력을 구성해야하지만 마음만 급했다. 타순 변화는 한 박자 빠르고, 마운드 전환은 한 박자 느리게 이뤄지면서 엇박자였다.

충격의 역전패 이후 김 감독은 “조급했던 것 같다. 반성을 많이 했다. 크게 밀그리를 그려보고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역전패를 곱씹었다.

전날 1번 나지완 카드가 3루타 포함 멀티히트, 2득점으로 성공적으로 활용됐지만 15일에는 정석대로 김호영이 1번 자리에 섰다.

김 감독은 “(김)광수에게도 미안하다. 앞서 결과가 좋지 못해서 짐을 덜어준다는 의미였는데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다”며 마운드 운영에 대한 부분도 되돌아봤다.

마음만 급했던 사령탑이 총격적인 역전패를 교훈 삼아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비 예보에 이범호 “아! 밸런스 좋은데...” 폭풍질주 나지완 “뒤에서 누가 잡는 느낌”

덕아웃 T 특·특

▲일단 동타는 이루고요

앞으로 10개가 남았다면서 한방 의지를 불태운 '공격형 안방마님' 이홍구다.

14일 경기 전 “타율도 타율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의 한방이 중요한 것 같다. 장타에 신경을 쓰겠다”던 이홍구는 각오대로 유회관을 상대로 투런을 쏘아올렸다.

지난 5월27일 시즌 마수결이 홈런을 기록하면서 한방에 대한 부담을 털어냈던 이홍구는 11일 삼성전에 이어 14일 두산전에서도 담장을 넘기면서 홈런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목표는 자신의 기록 경신. 이홍구는 “10개 남았다. 지난해 12개를 쳤으니 하나라도 더 쳐야 한다. 일단 동타를 만들고 봐야한다”고 웃었다.

▲밸런스 좋은데

15일 두산과의 경기에 앞서 가장 큰 관심사는 날씨였다. 이날 오후 늦게부터 광주에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자 선수

들은 경기 진행 여부에 관심을 기울였다. KIA의 홈런이 끝난 뒤 라커룸에서 휴식을 취하던 이범호가 날씨를 살펴보기 위해 김주찬과 함께 덕아웃으로 나왔다. 마침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범호는 “아 밸런스 좋은데...”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범호의 걱정과 달리 이날 오락가락하던 비가 이내 잠잠해지면 서 오후 6시30분 야구는 정상적으로 시작했다.

▲뒤에서 누가 잡더라고요

나지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질주였다. 나지완은 14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6회 2사에서 유회관을 상대로 두 번째 안타를 때려냈다. 우중간을 가르는 커다란 타구로 3루까지 열심히 뛴 나지완은 2루수의 실책으로 공이 뒤로 빠지자 3루를 찍고 홈까지 내달렸다.

슬라이딩까지 하면서 완성된 나지완의 치고 달리기. 발로 타점과 득점을 동시에 만든 나지완은 “3루를 도는데 뒤에 누가 잡는 기분이었다”고 힘들었던 질주의 순간을 회상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